

(3) 사회계열

【문제 1】 (30점)

※ 다음 제시문을 읽고 답하시오.

가) 푸지 씨는 다리아 양에게, 시간이 없어서 더 이상 찾아갈 수 없다는 용건만을 간단히 적은 사무적인 편지를 보냈다. 앵무새는 애완동물 가게에 팔아 버렸다. 어머니는, 시설이 좋지만 값이 싼 양로원에 맡기고 고작 한 달에 한 번 얼굴을 들이밀었다. 그 외에도 그는 회색 신사의 모든 충고를 충실하게 따랐다. 하지만 그는 회색 신사의 충고를 자기가 내린 결론이라고 믿었다.

그는 점점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안정을 잃어 갔다. 시간을 알뜰하게 쪼개 썼지만 손톱만큼의 자투리 시간도 남지 않았다. 정말 이상한 일이었다. 시간은 수수께끼처럼 그냥 사라져 버렸다. 그의 하루는 점점 더 짧아졌다. 처음에는 몰랐지만 나중에는 그 속도를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 어느새 일주일이 지났는가 하면, 한 달이 지나갔고, 한 해, 또 한 해, 또 한 해가 후딱 지나갔다.

그는 회색 신사가 찾아왔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었다. 그러니 그 시간들이 지금 어디로 갔는지 심각하게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시간을 아끼는 사람들이 으레 그렇듯이, 그런 질문은 하지 않았다. 그는 편집증에 걸린 사람처럼 시간을 아끼겠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리고 하루하루가 정말 빠르고 점점 더 빨리 흘러간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기라도 하면, 기겁해서 이를 악물고 더욱더 시간을 아껴 쓰는 것이었다.

대도시에는 어느새 푸지 씨와 같은 일을 겪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졌다. “시간 절약”을 시작한 사람들은 날마다 늘어났다. 그들의 수가 늘수록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앞사람의 행동을 따랐다. 그리고 싶지 않은 사람도 같이 행동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였다.

라디오와 텔레비전과 신문들은 날이면 날마다 시간 절약 효과가 있는 새로운 장치의 이점을 자세히 설명하고 그 우수함을 찬양했다. 이들 장치가 장차 사람들이 “제대로 된” 삶을 사는 데 필요한 여가를 선사해 주리라는 것이었다. 담벼락과 광고판에는 온갖 행복의 청사진이 담긴 포스터가 붙여졌다. 포스터엔 이를테면 번쩍 번쩍 빛나는 글씨로 다음과 같은 글귀들이 적혀 있었다.

시간 절약. 나날이 윤택해지는 삶!

시간을 아끼면 미래가 보인다!

더욱 보람찬 인생을 사는 법-시간을 아끼라!

하긴 시간을 아끼는 사람들이 옛 원형극장 인근 마을 사람들보다 옷을 잘 입긴 했다. 돈을 더 많이 벌었기 때문에 더 많이 쓸 수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무언가 못마땅한 기색이나 피곤함 또는 불만이 진득하게 배어 있었다. 눈빛에는 상냥한 기미라고는 찾을 수 없었다.

나) 요즘 휴가는 전혀 다르다. 겨울 휴가를 보내기 위해 클럽에 참가한 사람이나 가족은 아침 7시까지 기차역이나 버스 정류장에 도착해야 한다. 푸짐한 아침식사를 끝낸 뒤, 그들은 스키장 슬로프에 짐짝처럼 내던져진다. 휴식 시간은 오후 2시 경 슬로프 꼭대기의 휴게소에서 예정되어 있다. 더구나 마지막 리프트나 케이블카를 타기 위해 그토록 소중히 여기던 자신의 명예까지 그들은 내팽개친다. 슬로프에서는 코치가 지옥을 맛보게 해주려는 듯 지독하게 몰아붙인다. 코치의 말귀를 잘 알아듣고 시키는 대로 빠릿빠릿하게 해내지 못하는 사람은 안타깝게도 중급반에서 하급반으로, 혹은 초급반으로 사정없이 강등된다. 저녁식사 후에는 레크리에이션 진행자들이 그들을 인계해간다. 스케줄이 끝나면, 다음 주의 인파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 도착할 때만큼이나 도망가듯이 빠르게 행동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가방과 스키, 심지어 아이들까지 뒤바뀌어버릴 수 있으니까.

다) 시간을 초월해서 혹은 느린 시간 속으로 살그머니 빠져나가는 틈새인 걷기는 성과를 얻으려 한다거나 상업적으로 후원을 받는 어떤 탐색이 아니라 걷는 사람 자신의 능력에 맞추어 하는 노력이다. 보행자는 길과 시간을 따라 한가로이 거닐면서 자신의 시간을 어떻게 쓸지 홀로 결정짓는다. 길가에서 낮잠을 잔다거나 동행자들과 한담을 나눈다 한들 거슬릴 일 따위는 없다. 길을 걷는 사람은 한가로이 거닐거나 여유를 갖는다는 사실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한다. 자신의 그림자보다 빨리 걷는 보행자는 없다. 밀란 쿤데라는 우리 사회에서 한가로운 산책이 사라지는 사실을 안타까워하면서 체코 속담을 인용해 이렇게 말한다. “그들은 자비로운 신의 창문을 응시한다.” 그런 사람은 “행복하다. 우리 사회에서는 한가함이 무위도식으로 탈바꿈했지만 이 둘은 전혀 다른 것이다. 무위도식하는 사람은 낙담해 있고 권태로워하며 항상 자신에게 결핍된 부산스러움을 찾으려 한다.”

시간이 오로지 내 것이라는 차분한 확인이다. 걷기는 빠름, 수익성, 효율성이라는 절대적인 필요성을 피할 뿐 아니라 하등의 관계도 없다. 걷기는 시간을 버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우아하게 잃는 일이다. 더는 시간에 사로잡히지 않고 천천히 여유를 갖는 일이다. 그런 점에서 걷기는, 1920년대 포드 공장에서 단 한순간이라도 노동자들이 일을 멈추는 꼴을 용납할 수 없었던 테일러가 했던 끔찍한 말 “빈둥대기와 의 전쟁”을 법으로 삼는 사회에서는 근본적인 전복이다. 속도에 대한 광기는 그에 대한 반발로 속도를 늦추려는 의지를 끌어낸다. 걷기는 시간을 충분히 차지하되 느릿

느릿 차지하는 일이다. 걷기는, 삶의 의욕을 꺾는 현대의 그 절대적인 필요성들에 대한 일종의 저항이다.

라)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 꽃

[문제 1] 위 제시문에서 전반적으로 드러나는 논지를 제시하고, 그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논술하시오. (600자 내외)

【문제 2】 (30점)

※ 다음 제시문을 읽고 답하시오.

가) 자연은 인류를 고통과 쾌락이라는 두 주인에게 지배받도록 만들었다. 우리가 무엇을 할까 결정하는 일은 물론이요 무엇을 행해야 할까 파악하는 일은 이 두 주인을 위한 것이다. 한편으로는 옳음과 그름의 기준이, 또 한편으로는 원인과 결과의 사슬이 두 주인의 왕좌에 고정되어 있다. 이들은 우리의 모든 행위에서, 모든 말에서, 모든 사고에서 우리를 지배한다. 우리가 복종하는 일을 팽개쳐버리려고 갖은 노력을 기울일지라도 끝내는 복종심을 드러내고 확인하게 될 뿐이다. 최대행복의 원리는 이런 복종 관계를 인식시켜주고, 또한 이성과 법률의 손길로 행복의 틀을 짜는 목적을 지닌 체계의 기초로서 복종관계를 가정하고 있다.

최대행복의 원리란 자기 이익이 걸려있는 당사자의 행복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켜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향에 따라서, 달리 말하면 그러한 행복을 증진시키거나 증진시키는 것을 반대함에 따라서, 각각의 모든 행위를 승인하거나 부인하는 원리를 뜻한다. 나는 각각의 모든 행위에 대해 말하고 있다. 바로 그런 까닭에, 내가 말하는 바는 개인의 사적인 모든 행위뿐만 아니라 정부의 모든 정책에 대한 것이기도 하다. 최대행복의 원리란 이익 당사자에게 이익, 이득, 쾌락, 선, 행복을 낳거나 손해, 해악, 고통, 악, 불행이 발생하는 일을 막는 경향을 지닌, 어떤 대상에 들어있는 성질을 뜻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행복은, 만일 그 당사자가 일반 공동체라면 그 공동체의 행복이 될 것이고 그 당사자가 특정 개인이라면 그 개인의 행복이 될 것이다.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회피하는 것은 입법자가 살펴보아야 할 목적이다. 그러므로 이런 것들의 가치를 이해하는 것은 입법자의 의무이다. 쾌락과 고통은, 입법자가 지니고 작업해야 하는 도구들인 것이다. 개인에게 그 자체로 고려된 쾌락이나 고통의 가치는 다음 네 가지 여건에 따라 더 커지거나 더 작아질 것이다. 쾌락이나 고통의 강도, 지속성, 확실성 또는 불확실성, 근접성 또는 소원성이 바로 그 네 요건이다.

한쪽에서는 쾌락의 가치의 총량을, 다른 쪽에서는 고통의 가치의 총량을 합산해보라. 만일 가감한 값이 쾌락 쪽에 기운다면, 그것은 개별적 개인의 이익과 관련하여 전반적으로 행위의 좋은 경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만일 그 값이 고통 쪽에 기운다면 전반적으로 행위의 나쁜 경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나) 나는 욕망이라는 명칭을 인간의 모든 노력, 욕구, 충동, 의욕으로 이해한다. 이러한 것들은 같은 인간에 있어서도 각기 다른 상태에 따라 서로 다르며, 흔히 서로 반대된다. 그리하여 인간은 여러 다른 방향으로 끌려 다니며 자신이 어디로 향해야 할 지를 알지 못하게 된다. 우리의 본성에 의해서만 이해될 수 있는 방식으로 우리의 본성에서 나오는 욕망들은, 타당한 관념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파악되는 한에 있어서의 정신과 관계되는

것들이다. 여타의 욕망들은 사물을 타당하게 파악하는 한에 있어서의 정신에만 관계되며, 그것들의 힘과 성장은 인간의 능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 외부에 있는 사물의 힘에 한정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므로 전자는 능동이라 불러야 마땅하다. 왜냐하면 전자는 항상 우리의 능력을 나타내는 반면, 후자는 우리의 무능력과 불완전한 인식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우리의 능동(즉, 인간의 능력 또는 이성에 의하여 결정되는 욕망들)은 항상 선이지만, 그 외의 욕망들은 선일 수도 있고 악일 수도 있다. 그러므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유익한 것은 우리의 지성 또는 이성을 가능한 완전하게 하는 것이며, 오로지 이것에만 인간의 최고의 행복이 있다. 왜냐하면 이 최고의 행복은 신에 대한 직관적 인식에서 생기는 정신적 만족일 뿐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성을 완전하게 하는 것은 신 및 신의 속성들 그리고 신의 본성의 필연성에서 나오는 활동들을 인식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성에 의하여 인도되는 사람들의 궁극적 목적, 즉 그로 하여금 다른 모든 욕망들을 제어하려고 애쓰도록 하는 최고의 욕망은 그 자신 및 그의 인식의 범위 안에 들어올 수 있는 모든 것을 타당하게 파악하도록 그를 이끄는 욕망이다. 그러므로 인식 없이는 어떠한 이성적 생활도 있을 수 없다. 그리고 사물들은 인간이 인식에 의해 정의되는 정신적 삶을 향유하도록 돕는 한에 있어서만 선이다. 이에 반하여 인간이 이성을 완전하게 하여 이성적 삶을 향유하는 데 방해가 되는 것들만을 우리는 악이라고 부른다.

현자는 욕심에 의해서만 휘둘리는 자보다 훨씬 뛰어나다. 왜냐하면 무지한 자는 외부의 원인들에 의하여 여러 가지 방식으로 교란되어 결코 정신의 참다운 만족을 향유하지 못할 뿐 아니라, 마치 자신과 신과 사물을 의식하지 못하는 것처럼 생활하고, 작용 받는 것을 멈추자마자 동시에 존재하는 것을 멈추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현자는 현자로서 고찰되는 한에 있어서, 정신이 동요되지 않고, 자신과 신과 사물을 어떤 영원한 필연성에 의하여 의식하며, 결코 존재하는 것을 멈추지 않고 언제나 정신의 참다운 만족을 향유한다.

[문제 2] 제시문 가)와 나)는 “인간의 삶과 행복”에 대해 서로 다른 방식으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그 차이점을 대조하고, 제시문 가)를 “자본주의의 성장과 한계”와 연관 지어 논술하시오. (600자 내외)

【문제 3】 (40점)

※ 다음 도표를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도표 1> 인간개발지수 및 관련지표 (2014년 기준)

국가	기대 수명 (단위: 세)	평균 수학기간 (단위: 년)	국민총소득 (GNI) (단위: \$)	인간개발지수 (HDI)	
				점수	순위
노르웨이	81.5	12.6	63,909	94.4	1
호주	82.5	12.8	41,524	93.3	2
스위스	82.6	12.2	53,762	91.7	3
미국	78.9	12.9	52,308	91.4	5
독일	80.7	12.9	43,049	91.1	6
뉴질랜드	81.1	12.5	32,569	91.0	7
영국	80.5	12.3	35,002	89.2	14
대한민국	81.5	11.8	30,345	89.1	15
일본	83.6	11.5	36,747	89.0	17
프랑스	81.8	11.1	36,629	88.4	20
칠레	80.0	9.8	20,804	82.2	41
헝가리	74.6	11.3	21,239	81.8	43
터키	75.3	7.6	18,391	75.9	69
멕시코	77.5	8.5	15,854	75.6	71
전체(187개국) 평균	70.8	7.7	13,728	70.2	-

* 관련 용어

- 인간개발지수(Human Development Index, HDI) : 국제연합개발계획(UNDP)이 매년 각국의 교육수준과 국민소득, 평균수명 등을 통해 각국의 선진화 정도를 평가하는 지표. 만점은 100점
- 기대수명 : 사망률이 현재 수준으로 유지된다고 가정했을 때, 현(0세) 출생자가 향후 몇 년을 더 생존할 것인가를 통계적으로 추정된 나이
- 평균수학기간 : 국민 개인이 받은 교육 이수 기간을 평균한 값
- 국민총소득(Gross National Income, GNI) : 한 국가의 국민이 생산 활동에 참여한 대가로 받은 국민 1인당 소득

<도표 2> OECD 국가 국민의 생활만족도 및 관련 지표 (2014년 기준)

국가	사회적 연대	환경		일과 삶의 균형		생활만족도	
		대기오염	수질만족	주50시간 이상 근로자비중	1일 사용하는 여가시간	점수	순위
스위스	94	20	95	7.3	14.98	78	1
노르웨이	93	16	96	3.1	15.56	77	2
호주	93	13	93	14.23	14.41	75	7
멕시코	74	30	68	28.77	13.89	74	9
뉴질랜드	96	11	89	13.07	14.87	73	12
독일	93	16	94	5.6	15.31	71	16
미국	90	18	87	11.44	14.27	70	17
영국	94	13	92	12.27	14.83	69	18
프랑스	91	12	85	8.71	15.33	67	21
칠레	85	46	79	15.42	14.41	66	22
일본	90	24	86	22.62	14.93	61	25
대한민국	77	30	78	27.13	14.63	60	26
헝가리	87	15	77	2.92	15.04	50	32
터키	79	35	60	43.29	13.42	49	33
OECD(34개국) 평균	89	20	84	8.82	14.97	66	-

* 관련 용어

- 생활만족도 : 개인이 자신의 전반적 삶에 대해 느끼는 호의적 평가 정도로 100점 만점
- 사회적 연대 :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타인의 존재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
- 대기오염 : 10만 이상 도시에서의 유해물질분포정도(μg : 마이크로그램)
- 수질만족 : 도시 거주민의 수돗물 만족도(%)
- 주 50시간 이상 근로자 비중 : 전체 근로자 중 주 50시간 이상 자의 비율(%)
- 1일 사용하는 여가시간 : 근로자가 1일 중 사용하는 여가 및 개인 관리 시간

[문제 3] <도표 1>과 <도표 2>를 비교하고, 우리나라 국민의 생활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술하시오. (800자 내외)

(3) 인문사회계열

■ 출제의도

[문제 1]

- 문제1을 출제한 의도는, 각 제시문에 내포되어 있는 포괄적 의미를 파악하고, 그것들을 서로 관계 지어 자기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능력을 봄.
- 각각의 제시문의 내용을 파악해야하며, 그리고 그것들을 연관 지어 생각할 수 있어야 함. 그리고 보다 나은 삶이란 무엇인가 하는 가치의 문제에 대해서도 따져보아야 할 것임. 특히 라)의 경우 생략된 부분을 상상력으로 채워 읽을 수 있는 능력과 그것들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모두 요구됨. 무엇보다 이러한 것들을 논리적으로 서술할 수 있는가를 시험하고자 함.

[문제 2]

- 문제 2를 출제한 의도는 삶과 행복이라는 주제 아래 서로 다른 전통과 가치관을 지닌 지문을 비교 평가하는 능력을 파악하는 것임.
- 충돌되는 가치관들을 대조하고, 철학, 사상의 영역에 해당되는 영역을 경제적 영역과 연관 짓는 통합적이고 창의적인 능력이 있는지, 그 창의력을 논리적으로 기술할 능력이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출제 의도임.

[문제 3]

- 인간의 행복을 경제적, 비경제적 관점에서 이해하고, 우리의 경우 비경제적 관점에서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함.
- 따라서 학생들의 도표에 대한 분석력, 도표간 상호비교, 문제 해결의 대안을 제시하는 창의력을 파악하는 것이 출제 의도임.

■ 채점기준

[문제 1] (30점 만점)

- 1) 제시문 가)는 미카엘 엔데의 장편동화 『모모』의 일부임. 여기서 현대인은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여가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착가하지만 사실은 더 유가 없어진다는 점이 나타남. 제시문 나)는 피에르 쌍소의 『느리게 사는 것의 의미』의 일부임. 오늘날에는 휴가조차도 지나치게 짜인 시간 속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현대인은 휴가 때조차 여유는커녕 서둘러 치러야 하는 일이 디고 있다는 점을 강조함. 제시문 다)는 다비드 르 브르통의 『느리게 걷는 즐거움』의 일부임. 이 글은 지나치게 빠르게 사는 현대인의 삶을 비판하며 그 대안으로 느리게 사는 삶을 제시함. 제시문 라)는 고은의 시 「그 꽃」임.(원래 이 시의 제목은 없지만, 통상 「그 꽃」이라고 부름.) 어딘지 명확하지는 않지만 그리로 올라갈 때는 바쁜 일에 쫓겨 꽃을 보지 못했으나 일을 다 치르고 마음의 여유가 생겨 거기서 천천히 내려올 때는 꽃이 눈에 들어온 상황을 선명한 이미지로 표현하고 있음. 이런 점에서 위의 글들과 상통하는 바가 큼.

- 2) 위 글 전체의 논지를 제시하는 데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음. 가), 나), 다), 라)의 요지를 각각 제시하고 여기에서 전반적으로 드러나는 논지를 제시할 수 있음. 아니면 먼저 글 전체에 드러나는 논지를 제시하고 가), 나), 다), 라)의 내용을 논거로 삼아 그것을 설명할 수도 있음. 어떻게 제시하든 거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겨 있어야 함. 현대인은 너무 바쁘게 살고 있다는 의미가 담겨 있음. 오늘날 현대인의 삶은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지기는 했지만 정작 중요한 것들을 놓치는 경우가 많음. 이에 대한 대안으로는 삶의 속도를 늦추어야 함. 물론 반드시 이와 같지는 않더라도 이와 유사한 의미를 내포하면 됨. 그러니까 ‘느림’이든 ‘빠름’이든 시간의 문제가 논지의 중심에 있어야 함. 만약에 그냥 막연하게 문명에 대한 문제라든가 현대인의 삶에 대한 문제로 논지를 제시하면 그것은 근본적으로 답에서 상당히 벗어났다고 할 수 있음(약 10점)

- 3) 이 글 전체에 대해 제시한 논지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서술하는 것은, 그 논지를 옹호할 수도 있고 비판할 수도 있으며 양자를 수용하면서 제3의 견해를 제시할 수도 있음. 중요한 것은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는 논리가 탄탄해야 한다는 것임. 논거로는 현대인의 삶 전반에서 우리나라의 상황, 개인의 삶이나 취미 등 다양한 측면에서 끌어올 수 있으리라 생각함.(약 15점)

- 4) 어휘력, 문장과 전체 구성도 점수에 포함함.(약 5점)

[문제 2] (30점 만점):

- 제시문 가)와 제시문 나)의 비교 (15점):

- 두 지문을 하나의 관점으로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능력 측정
(내용만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두 지문을 대조, 분석하는 능력이 있어야함)
- 어떤 방식으로 어떤 해결책을 제시했는지에 관한 내용을 분석 대조하여야함.
(그 외의 관점에서 두 지문을 분석하는 것은 의미가 없음)
- 예시답안의 전반부 참조

Key Word : 제시문 가) (최대다수의)최대행복, 쾌락의 증진과 고통의 감소, 벤담의 공리주의, 계량화를 통한 측정, 양적 공리주의. 제시문 나) 통합적, 범신론적 세계관, 삶의 평정을 얻는 참다운 만족 성취, 정염의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 능동성을 극대화, 이성적 삶 향유, 참된 인식과 이성적 관조

- 공리주의를 자본주의의 성장과 한계와 연관 짓는 부분 (15점):

- 최대행복의 원리가 경제자유주의를 지탱하는 사상적 버팀목이 되었음을 파악하는 내용.
- 최대행복의 원리가 경제적으로 극대화 되는 사회에서는 개인의 권리, 특히 가난한 사람의 권리가 무시될 수 있는 맹점이 있다는 점, 공동체 가치가 파괴될 수 있다는 점 등 한계점 지적
- 주장의 내용이나 건전성이 아니라 주장을 전개하는 과정의 논리성과 설득력을 평가할 것.
- 예시답안의 후반부 참조

Key Word : 최대행복의 원리가 경제자유주의, 자본주의를 지탱하는 사상적 버팀목 개인의 권리, 특히 빈자의 권리 무시, 공동체 가치 파괴

[문제 3] (40점 만점):

1) <도표 1>, <도표 2>의 분석 (20점) :

- 예시 답안의 첫 번째 - 세 번째 문단 참조
 - 우리나라 입장에서 기본 특징 도출 : 평균과의 비교, 특징치(최대치, 최소치)와의 비교
 - 구체적인 수치 인용도 중요함
- 고려사항
 - 우리나라가 아닌, 즉 세계적 관점에서 선진국과 후진국으로 구별하고, 그 특징을 기술하는 경우도 논리적인 답변이면 인정

2) <도표 2>에 대한 분석을 기반으로 문제 해결 방안 제시 (20점)

- 예시 답안의 네 번째 - 여덟 번째 문단 참조
- 생활만족도와 관련있는 사회적 연대, 공해, 일과 삶의 균형 관점에서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
- 세 가지 이상의 방안을 논리적으로 제시하면 만점
- 분석 결과 혹은 문제점을 단순히 반복(예, 단순히 '환경개선이 필요하다'고 기술)하면 점수를 주지 말 것

■ 모범답안

[문제 1]

위 제시문 가), 나), 다), 라)는 모두 현대인의 삶과 '시간'의 관계에 대한 글이다. 여기에는 공통적으로 현대인은 너무 바쁘게 살고 있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오늘날 현대인의 삶은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지기는 했지만 정작 중요한 것들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 가족이나 사랑하는 이에 대해 무관심해 지고, 여가조차도 빨리빨리 해치우며, 자연에 눈을 돌릴 마음의 여유도 없다. 심지어 정신병에 시달리기도 한다. 그러니 시간은 우리의 것이 아니다. 시간을 우리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삶의 속도를 늦추어야 한다.

오늘날 현대인은 늘 시간에 쫓기면서 산다. 이러한 현상의 바탕에는 수익성, 효율성, 목적지향 등의 현대 사회의 특성이 깔려 있다. 이러한 특성이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닐 것이다. 그것은 우리에게 경제적 풍요를 가져다 주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위 제시문 가)에서와 같이 우리의 생활은 더 바빠지고 여유는 더 없어지고 있다. 자신의 의지와는 다르게 일에 매몰되어 자기 자신을 잃어가고 그러면서 행복지수는 도리어 줄어들고 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파키스탄과 같은 나라의 행복지수가 가장 높다는 것은 이러한 현상을 잘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빨리빨리 문화가 유난히 두드러진 현상으로 나타난다. 심지어 우리나라의 지구 반대쪽에 있는 외국 사람들조차 대한민국 하면 '빨리빨리' 라는 말을 떠올린다. 그것은 한국전쟁 이후 우리나라가 급속도의 경제 발전을 이룬 것이 사실이고, 빨리빨리 문화가 그 동력으로 작용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니 빨리빨리 문화가 반드시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그 부작용이 드러나고 국가와 사회 전체의 문제를 할 정도로 큰 문제를 야기하는 것도 사실이다.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 성수대교 붕괴 사건 등의 대형사고나 최근 문제를 드러내고 4대강 사업도 이러한 빨리빨리 문화의 부정적 결과이다.

최근 한때 현대인의 상징처럼 여겨지던 패스트푸드를 대신해 슬로우푸드가 강조되기도 한다. 이는 슬로우 라이프로 확대되고 느낌의 미학으로까지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빠른' 사회에 대한 번성적 성찰의 결과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그렇게 살 수만은

없을 것이다. 요는 속도의 조절이 필요하다.

[문제 2]

- 제시문 가)는 인간의 쾌락을 극대화하여 최대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을 삶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삼는다. 삶의 목적은 쾌락의 증진과 고통의 감소이다. 벤담은 분석적 실증주의, 계량화를 통한 정량적인 측정을 통해 행복에 접근하고자 하였다. 벤담의 공리주의(최대행복의 원리)는 관찰과 경험을 통해 법칙을 탐구하는 실증적 방법에도 토대를 두고 자유주의적이고 개인주의적인 세계관을 구축하였다. 이와 대조적으로 제시문 나)는 인간과 신과 사물(자연, 우주)가 영원한 필연성 안에서 하나가 되는 통합적, 범신론적 세계관을 구축한다. 삶의 목적은 삶의 평정을 얻는 참다운 만족을 성취하는 것이며, 그 해결책으로 정열의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 능동성을 극대화하여 이성적 삶을 향유하는 것을 제시하였다. 소수의 명증적 원리에서 논리적 귀결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참된 인식과 이성적 관조를 통해 행복을 추구하였다.
- 최대행복의 원리가 경제에 적용될 경우 시장 자유주의를 뒷받침하는 정신 문화적 토대로 작용한다. 최대행복의 원리는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교환 활동과 교환을 통해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자본주의의 성장에 기여한 바가 크다. 벤담식 경제적 자유주의의 한계점은 개인의 권리, 특히 빈자의 권리가 존중되지 않는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다. 극단적이고 무자비한 이윤추구를 정당화할 이론적 근거를 제공해 주기 때문이다. 경제적 빈곤계층에 대한 배려 부족은 사회적 불안을 야기할 가능성도 있다는 점에서 지속적 자본주의의 구축에도 위협적이다. 모든 가치를 돈으로 환산할 수 있다는 정량적 태도는 건전한 공동체의 가치를 파괴시키고 심각한 윤리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점들은 벤담식 공리주의의 맹점이자 건강한 자본주의 건설에 역기능을 하는 요인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문제 3]

<도표 1>과 <도표 2>는 인간의 행복(만족)에 대한 서로 다른 관점을 나타내고 있다. <도표 1>은 경제적 측면에서의 행복을 나타내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매우 높은 수준(15위/187개국)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 <도표2>는 비경제적 측면에서의 행복인데, 우리나라는 OECD 국가와 비교할 때 매우 낮은 수준(26위/34개국)을 보여주고 있다.

<도표 1>에서는 기대수명, 평균수학기간, 개인소득 등 3개 지표와 인간개발지수를 나타내고 있다. 기대수명은 전세계 평균(70.8세)에 비해 월등히 높은 81.5세로 노르웨이 호주, 스위스 등 선진국과 차이가 거의 없다. 평균수학기간 역시 11.8년으로 선진국에 비해 큰 차이가 없다. 개인 소득은 전체 평균의 2.5배 정도로 높긴 하나, 앞의 주요 선진국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앞의 세 지표를 결합한 인간개발지수는 전세계 상위권인 15위로 상당히 높은 실정이다.

<도표 2>에서는 사회적 연대, 환경, 일과 삶의 균형, 생활 만족도 지표를 각각 보여주고 있다. 사회적 연대는 OECD평균(89)에 비해, 또 멕시코(74), 터키(79)를 제외한 대부분의 OECD 국가보다 현저히 낮다. 환경 중 공해는 평균(20)을 50% 이상 초과하고 있고, 칠레(46)을 제외한 모든 OECD 국가보다 높다. 수질의 경우, OECD 평균(84) 보다 약간 낮은, 중간 이하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종합적으로 OECD 국가 중 낮은 환경만족도를 나타내고 있다. 주50시간 이상 근로자의 비중은 OECD 평균(8.82)보다 높고, 터키(43.29), 멕시코(28.77)를 제외한 OECD국가보다 현저히 높은 수준이다. 반면, 1일 사용하는 여가 시간은 14.63으로 전체 평균 14.97과 큰 차이가 없다. 결국 우리나라는 여가시간은 별 차이가 없으나, 장시간노동으로 인해 일과 삶의 균형이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상의 분석 결과 우리나라 국민의 생활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는 OECD 34개 국가 중 26위, 즉 하위 1/4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이러한 분석을 기초로 우리나라 국민의 생활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사회적 연대, 환경, 일과 삶의 균형 관점에서, 그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 연대를 촉진하여야 한다. 인간관계가 중요하다는 믿음을 갖고, 타인에 대해 관심을 갖고 배려하는 자세를 갖는다. 각종 모임, 지역사회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둘째, 공해 및 수질 개선을 위해 개별 국민 입장에서는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한다든지, 각종 쓰레기를 줄이는 등의 노력을 다한다. 정부도 공해유발 및 수질 오염을 높이는 행위에 대해서는 세금부과 등으로 질을 관리해 나가는 역할도 필요하다.

셋째,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개인 입장에서는 줄어든 근로시간을 가족과 함께 보내거나, 자기개발을 위해 투자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기업 및 정부 입장에서는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근로시간을 늘릴 수밖에 없다면, 교육훈련을 통해 근로자의 능력을 개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넷째, 무엇보다도 각 개인의 의식에서 경제적 측면만이 아니라, 비경제적 측면에서의 만족이 우리 삶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 전환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위해서는 개인적인 노력과 더불어 홍보, 교육, 사례발굴 등 정부차원의 지원책도 함께 있어야 할 것이다.